

새로 나온 책

▶강창일, 걱정 55년, 조작된 정치범의 시대 증언록(강창일 지음)=주일대사를 지낸 제주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인 강창일 전 의원이 197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바라본 시대 증언록.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역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인들을 ‘연설 잘하는 연사’, ‘전략가인 책사’, ‘아침꾼인 첩사’ 등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도서출판 각. 2만2000원.

▶특별한 금쪽이 900일의 기록(김창학 지음)=저자가 35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 한 뒤 법무부 특별보호관찰관 활동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을 기록한 책. 현장에서 보호청소년의 변화를 지켜본 저자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성을 갖고 멘토링한다면 보호청소년의 일탈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소락원. 1만5000원.

▶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강(손석춘 지음)=저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심화하고, 그 심화된 내면을 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다시 사회구성원을 개개인의 내면 성숙을 돕기에 노동과 성찰, 성찰과 노동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철수와 영화. 1만8000원.

▶아마 내가 별에서 왔다지오(노신임 지음)=속기(속취) 사무소를 배경으로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고객들은 주로 법적 분쟁을 위한 녹취물을 의뢰하는데, 그만큼 사연고 깊고 간절하며 대부분 ‘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저자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방법론도 제시한다. 밀알속기록스. 2만2000원.

▶청소년을 위한 두 글자 인문학(김경윤 외 8인 지음)=우리 일상 속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홉 가지 두 글자를 선별해 그 하나하나의 주제를 오롯이 풀어낸 책이다. ‘생각’, ‘질문’, ‘철학’, ‘공부’, ‘독서’, ‘역사’, ‘사람’, ‘고통’, ‘행복’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인문정신의 바탕 위에서 자기 생각을 바로잡고, 지적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노. 1만7000원. 강다혜기자

이 책!

『여기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하여』
배리 로페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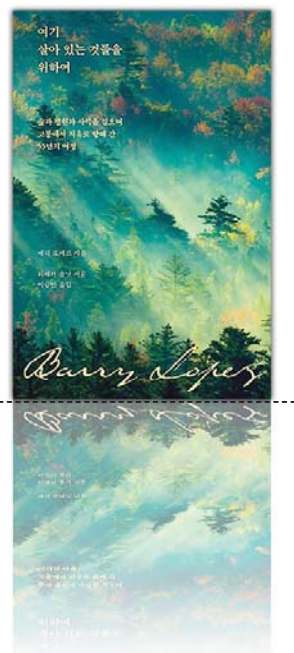


사랑과 연대의 방식으로 마주하는 세계

‘여기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하여’(북하우스 펴냄)는 미국도서관 수장 작가이자 ‘북극을 꿈꾸다’의 저자인 배리 로페즈의 마지막 에세이 모음집이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22년 미국에서 출간됐다. 자연과 장소, 인간과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가는 ‘자연주의 작가’로 불린다. 55년이 넘는 세월 동안 80여 개 나라를 여행하면서 20권이 넘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선 작가가 다녀왔던 장소들과 스스로 실천해온 사랑의 정신이 담담하게 펼쳐진다. 자연을 대하는 행동과 자연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한없이 깊숙하다. 작가는 “매번 멀리 세계의 끄트머리에 다다를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될 때가 많았다”며 “오스트레일리아 노던준주의 타나미 사막이나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의 나미브사막, 캐나다 북극권의 엘즈미어섬 북부에 서 있을 때,

나는 인간 문화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안도감이 가장 고양되고 타인을 향한 공감이 가장 깊어지는 걸 느낀다”(본문 중)고 했다. 생전 작가를 사로잡았던 주제와 특징이 집약된 이 책은 탐험에 대한 보고서이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회고록이기도 하다. 여행 중 마주한 다양한 풍경에 대한 경이로운 기록을 비롯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답답한 회고록, 부서져가는 세상에 보내는 간곡한 전언 등 26편의 글이 담겼다. 작가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감동적이고 때때로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 육지 동물과 해양 생물을 연구하기 위해 떠났던 탐험의 후기, 남극 등 지구상의 여러 특별한 장소를 찾아갔던 여행에 대한 추억 등을 풀어놓는다. 더불어 자연을 바라보는 눈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몸소 가르쳐준 선주민 원로들과 과학자들,

작가들에 대해서도 회고한다. 출판사는 “그는 주의깊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조곤조곤 말한다”며 “그의 글들은 인간과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 당장 고민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호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길러나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글들을 읽어나가는 사이, 삶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여 더 넓고 그윽한 시선으로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리베카 솔닛은 “그의 글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고 구원의 힘에 대한 더 넓은 인식을 직조해낸다”고 평했다. 이 승민 옮김. 1만9500원. 오은지기자



여행에 어떤 해석을 달 수 있다면, 작가가 된 이후 내 성인기의 여행은 대개 일상을 뒤로하고 문명사회의 보수적인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

키케로의 편지로 엿보는 로마 사회

가스통 부아시에의 ‘키케로와 친구들’

1884년 출간된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문인인 가스통 부아시에가 지은 ‘키케로와 친구들’(달집 펴냄)이 최근 국내에 번역돼 소개됐다. 아세트 출판사의 제14판(1908년)의 한국어판이다. 저자는 키케로가 남긴 편지를 중심으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과 요동쳤던 로마 정국을 조명한다. 우정과 인정의 중요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문인 키케로를 무인 카이사르와 대비해 봤다. 더불어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브루투스 등 여러 군웅의 면모도 조명한다. 또 당시 상류층과 민중의 생활, 주변국과의 관계 등 사회상도 두루 파헤쳤다. 옮긴이의 글에 따르면 책은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 키케로의 편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간 독후감 같은 문제를 보여”주는 에세이 양식의 역사서다. 특히 역사와 지리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읽을 만한 역



사서인데도 많은 사람이 열독했고 각국에서 번역판을 쏟아냈으며 증쇄를 거듭했다고 전했다. 옮긴이는 “저자는 키케로 못지않게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폼페이우스 등 권력자들의 정세도 파헤쳤다”며 “일부 역사가가 단순화해 난도질하거나 찬양 일색인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적 참모습을 추구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계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라는 따뜻하면서도 냉엄한 현실의 모순과 비극을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정진국 옮김. 2만2000원. 오은지기자

생활밀착형 이슈로 쉽게 읽는 경제학

남시훈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쉬운 경제학’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 선다. “모든 선택이 경제학의 관심사에 포함된다”는 저자는 “경제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쉬운 경제학’(남시훈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은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를 통해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책을 읽으면서 일상에서 접했던 일들이 경제 현상 및 경제학적인 선택과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학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라며 온갖 그래프와 수식으로 가득한 교과서 속 경제학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경제 개념과 접목해 펼쳐놓는다. 크게 6장으로 구성된 책엔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부터 왜 정부가 시장



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담겼다. 출판사는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쫓다 보면 고전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에 근거한 다양한 경제 이론과 경제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큰 숲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1만7000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사업은 대륙기계와 함께

보조신청 접수중

신제품

DLK210ETRC (20.5마력)

신제품

DLK140TRC (14마력)

DLK14TRC (16마력)

DLK18TRC (18마력)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레도형 덤프+리프트)

MX-500 (레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선별기

FELCO SWISS+MADE

후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2 404 SEC19 30mm

FELCO 812 404 SEC19 40mm

FELCO 822 404 SEC19 40mm

■ 찾아오시는 길

남원↑ 300m 위미농협 주유소 위미 효돈삼거리

대륙종합농기계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판매/AS문의 064) 767-3430